

KIA 에이스 네일마저 ‘안 풀리네’



SSG와 더블헤더 1차전서 4이닝 7실점…4-8로 패
황동하 교통사고 이탈 악재까지…최형우는 투런포

3승을 향한 제임스 네일의 5번째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앞선 4경기에서는 타선의 지원이 따르지 않았고 이번에는 네일 스스로 무너졌다.

KIA 타이거즈 네일은 11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4이닝 7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네일이 부진 속에 KIA는 4-8 패배를 기록했다.

SSG 미치 화이트와의 ‘에이스’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투수전’이 기대됐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날 경기 전까지 8경기에서 1.0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네일이 4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일찍 물러났다.

네일은 4이닝 8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7실점이라는 올 시즌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평균자책점은 2.18이 됐다.

화이트도 5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화이트는 최형우가 투런포는 맞았지만 5이닝 4피안타(피홈런) 4볼넷 3탈삼진 3실점(2자책점)의 승리투수가 됐다.

1회초 1사 2루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다.

1회초 박찬호가 화이트를 상대로 중전안타로 출루했다. 위즈덤이 우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

면서 원아웃. 3번 김도영의 타석에서 투수의 1루 견제구가 뒤로 빠지면서 박찬호가 2루 진루에 성공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박찬호가 득점권에 자리했지만 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김도영이 3루 땅볼로 물러났고, 최형우도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다.

2회초에는 2사에서 홍중표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까지 성공했지만, 한준수의 투수 앞 땅볼로 이닝이 소독 없이 끝났다.

그리고 2회말 네일이 흔들렸다. 선두타자 한유섬에게 볼넷을 허용한 네일이 라이언 맥브룸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하면서 무사 1-3루에 몰렸다. 그리고 최준우에게 중전안타를 맞아 선취점을 내줬다.

김성현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 정준재의 1루 땅볼로 투아웃은 만들었지만 조형우의 좌중간 적시타가 나오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다.

3회에도 네일의 실점이 기록됐다.

선두타자 박성환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한 네일은 최정과 한유섬을 연속 삼진으로 잡으면서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맥브룸에게 중견수 키넨은 2루타를 허용하면서 0-4가 됐다.

KIA는 4회초 밀어내기 볼넷으로 1-4를 만들었지만 4회말에도 네일이 흔들렸다.

선두타자 김성현이 볼넷 뒤 도루로 2루까지 향했다. 1사 2루에서 네일이 조형우에게 중전 적시타를 허용했다. 이어 최지훈에게 3루타를 내줬고, 박성환의 희생플라이까지 나오면서 1-7까지 벌어졌다.

5회초 최형우가 1사 1루에서 화이트의 6구째 직구를 좌측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2점을 보냈지만, 네일이 물러난 5회에도 김건국이 실점을 기록하면서 3-8이 됐다.

KIA는 6회초 2사 1-2루에서 나온 변우혁의 중전적시타로 1점을 보냈지만 이후 이닝에서는 점수를 만들지 못하면서 4-8 패배를 기록했다.

네일은 시즌 세 번째 경기였던 4월 3일 삼성전에서 첫 승을 기록한 뒤 4월 9일 롯데를 상대로 2승을 수확했다.

하지만 이후 4월 15일 KT(6이닝 무실점), 4월 20일 두산(5.2이닝 2실점), 4월 27일 LG(6이닝 2실점), 5월 4일 한화(7이닝 1실점)와의 경기에서 호투를 이어가고도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팀은 네일이 물러난 뒤 점수를 만들면서 3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뒀다. 네일이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던 한화전은 폰세의 기세에 눌린 KIA의 1-3패배였다.

황동하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력에서 이탈한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던 네일이 무너지면서 KIA의 마운드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한편 황동하는 지난 8일 인천 속소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동하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허리뼈 2번 3번 횡돌기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6주간 보조기 착용 및 안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더블헤더 1차전. KIA 선발 투수 네일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정 10연전’ 전남, 홈 개막전서 승리 축포

K리그2 11R 성남에 2-1 승

알베르피 1골 1도움 ‘활약’

‘원정 10연전’을 마치고 안방으로 돌아온 전남드래곤즈가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전남드래곤즈가 1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11라운드 성남FC와의 홈개막전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전남은 잔디 교체 공사로 원정 10연전을 펼친 뒤 이날 시즌 처음으로 홈팬들을 마주했다.

알베르피가 1골 1도움의 활약을 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반 35분 중원에서 공을 다투는 전남이 공세를 벌였다. 호난이 오른쪽 슈팅을 선보였지만 몸을 날린 성남 골키퍼 유상훈에 막혔다. 아쉬움은 잠시였다.

1분 뒤 호난이 골세리머니를 펼쳤다.

박스 왼쪽에서 3명의 수비진에 둘러싸여있던 알베르피가 문전에 있던 호난에게 공을 넘겼다. 호난이 왼발로 때린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대 왼쪽을 뚫었다.

전반전을 1-0으로 마무리한 전남은 후반 초반 추가골을 기록했다. 호난의 골을 도왔던 알베르피가 주인공이 됐다.

임찬율이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 경향이 펼쳐졌다. 뒤로 흐른 공을 잡은 알베르피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에 막혔다. 하지만 알베르피가 굴절된 공을 잡아 재차 슈팅을 시도했다. 알베르피의 왼발을 때린 공은 이내 성남 골대를 갈랐다.

후반 34분에는 골키퍼 최봉진이 호수비를 선보였다.

장영기가 왼발로 때린 중거리 슈팅이 전남 골대로 향했지만 최봉진이 뛰어올라 손으로 공을 쳐냈다.



전남드래곤즈의 알베르피가 1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홈개막전에서 후반 8분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전남의 골대가 열렸다.

오른쪽에서 신재원이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 결합 과정 끝에 공을 잡은 후이즈가 오른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시즌 7호골에 성공했다.

전남은 경기 막판 실점은 했지만 5분의 후반 추

가 시간을 잘 지키면서 2-1승리를 거뒀다.

한편 안방으로 돌아온 선수단을 맞이 위해 이날 광양축구전용구장에는 7975명이 입장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너달만에 풀타임 ‘대승 전인’

PSG, 몽펠리에 4-1로 물리쳐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이 너달 만에 리그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3점 차 대승에 기여했다.

PSG는 11일 프랑스 몽펠리에의 스타드 드 모송에서 열린 2024-2025시즌 리그1 3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헤트트리를 폭발한 곤살루 하무스를 앞세워 몽펠리에를 4-1로 물리쳤다.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PSG는 승점 81점을 쌓으며 2위 마르세유와 격차를 승점 19로 벌렸다.

주중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2차전에서 아스널(잉글랜드)을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PSG는 당시와는 다른 전열로

경기에 임하며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아스널과 2차전에 나서지 않은 이강인도 모처럼 출전해 지난 1월 17라운드 생테티엔과 경기 이후 4개월 만에 리그에서 풀타임을 뛰었다.

공식전 기준으로는 지난 2월 프랑스컵 16강 르망과 경기 이후 3개월 만이다.

이강인은 이날 몇 차례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전반 36분 이강인이 골 지역 왼쪽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날린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많이 벗어났다.

전반 42분에는 동료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이강인 발 앞으로 떨어졌으나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후반 26분에는 이강인의 결정적인 패스를 이브

라힘 음바에가 문전 슈팅으로 마무리 짓기 직전 스스로 넘어진 탓에 도움이 무산됐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6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PSG는 전반 44분 세니 마울루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날린 왼발 강슛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후반전 하무스가 3골을 연사했다.

후반 4분 음바에의 킥백을 왼발로 마무리해 2-0을 만든 하무스는 10분 뒤엔 데지레 두에가 만든 페널티킥 키퍼로 나서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하무스는 후반 20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골키퍼 아르나우 테나스의 롱패스를 통렬한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마무리해 3점 차 승리에 제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3분57초 만에 3골’ 라리가 신기록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쇠를로트…소시에다드 4-0 제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골잡이 알렉산데르 쇠를로트(29·노르웨이·사진)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최단 시간 헤트트릭 기록을 새로 썼다.

쇠를로트는 11일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2024-2025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74분을 뛰는 동안 네 골을 몰아넣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한 경기에서 혼자 네 골이나 넣는 것도 대단한데 네 골을 넣는 시간이 더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전반 7분이 새 역사의 시작이었다.

파블로 바리오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쇠를로트가 문전으로 세도하면서 왼발로 차 넣어 선제 결승골을 뽑았다.

이후 전반 10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왼발슛으로 추가 골을 넣은 쇠를로트는 1분 뒤 상대 수비가 제대로 걸어내지 못한 공이 운 좋게 골문 앞에 있던 자기 쪽으로 떨어지자 왼발로 차넣어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쇠를로트는 전반 30분 하비 갈란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내준 공을 이어받아 왼발슛으로 다시 골문을 열어 네 번째 골 맛까지 봤다. -

아틀레티코 구단에 따르면 쇠를로트가 헤트트릭을 달성하는 데에는 킥오프 후 10분 46초가 걸렸다.

특히 첫 골(7분)과 세 번째 골(11분) 사이 간



격은 3분 57초에 불과했다. 이는 프리메라리가 역사상 최단 시간 헤트트릭이다.

종전 기록은 2016-2017시즌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던 케빈 가메이로가 스포르팅 히혼을 상대로 헤트트릭을 달성할 때 작성한 4분 44초다.

경기 시작 후 11분 만에 완성한 헤트트릭도 1929년 카를레스 베스티트, 1941년 에드문도 수아레스가 갖고 있던 종전 기록 15분을 4분이나 앞당긴 신기록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사디오 마네(알 나스르)가 사우샘프턴 소속이던 2015년 5월 애스턴 빌라를 상대로 경기 시작 후 2분 56초 만에 헤트트릭을 기록한 바 있다.

/연합뉴스